

Edgar Allan Poe: 존재의 위기의식과 삶에 대한 총체적 이해

이 인 기

Edgar Allan Poe는 단편소설이라는 장르를 확립하여 미국 문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 놓은 작가이다. 그리고 프랑스 상징주의에 영향을 끼친 시대를 앞서 간 작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외현적 업적만을 언급한 것으로 정작 작가로서의 그의 철학과 인생이해의 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를 삶의 철학이 일천한 기예가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포괄적인 인생이해의 구도를 작품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던 R.W.B. Lewis는 Poe를 고려대상에 넣고 있지도 않다. Poe의 유태주의가 암시하는 현실이탈, 단편 선호에서 드러나는 인생이해의 협소한 범주, 그리고 통일된 효과를 위한 기예의 확립에 치중하여 인생현실의 전체구도를 그려내지 못한 점 등이 그를 인생 이해의 해안을 갖추지 못한 작가로 규정받게 한 것이다. 그러나 Lewis를 비롯한 여러 비평가들의 이러한 평가에는 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성급한 專斷의 일면이 있다. 사실 Poe는 자신의 외현적 성과에 못지 않게 사회 현실과 인생에 대한 그 나름의 인식을 철저히 견지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를 풍미하던 경제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공포와 죽음의 心狀, 죽음을 통한 재생 등의 구도를 통해 삶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당시의 사회 현실을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이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인생이해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구도를 갖고 있었던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Poe에 대한 편협된 시각을 검토하여서, 그가 사실은 삶의 현실을 긍정하였으며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졌던 작가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인생이해의 포괄적 구도를 작품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는 Lewis의 이론을 틀로 삼아서 그것과의 연관 아래 Poe의 단편들과 장편소설 및 산문 장시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I. Lewis와 Poe

R.W.B. Lewis는 19세기의 미국문학사를 정리하면서 American Adam이라는 原形을 설정하였다. 그는 이 원형을 통하여 당시의 정신사를 古來의 원죄의식과 신세계의 장대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가 갈등하고 있는 구조로 파악하였다. 그에게 포착된 당시의 세계관은 원죄의 유습을 받고 있던 소위 the party of Memory와, 과거의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양심을 이상으로 삼고 있던 the party of Hope가 대립하는 양태를 띠고 있었다.

그 당시 the party of Memory가 견지하던 원죄의식은 청교도적 사회의 절대윤리로 군림하면서 결국에는 사회적 강박관념으로까지 형성되었다. 이러한 죄의식은 *The Scarlet Letter*에서 묘사된 것처럼 인간성을 무력하게 할 만큼 심리적인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Whitman, Emerson 등의 the party of Hope는 원죄의식을 전면 부정함으

로써 과거와의 단절과 전혀 새로운 역사의 창도를 부르짖었다. 그들에게 역사란 바로 그곳에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며, 따라서 미국인들이란 새로운 지상낙원에서 새로운 Adam으로서 살아가는 인간들이었다. 즉, 그들은 신대륙의 새로운 환경에서 미국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타락 전의 Adam'을 그들의 삶의 이상형으로 삼음으로써 the party of Memory와는 정반대로 원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기정사실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역사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놓음으로써 미국이라는 역사의 태동기에 신화적 의미를 부여하여 궁극적으로는 유럽의 예속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국가적 자의식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Lewis는 이러한 이분법적 분석만으로는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의 유전을 고수하려는 것은 인생을 원죄의식의 질곡 속에 묶어 두려는 태도일 뿐이며, 또한 원죄의식을 완전부정하고 인간성의 낙천적 純全性만을 강조하는 것도 절제없는 외침에 불과할 뿐 고결한 인간성으로의 향상의지를 攄止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 시대를 통찰하고 있던 작가들에게서 그 양자의 변증법적 과정이 오히려 삶의 현실을 포괄적으로 제시해 주는 방안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19세기 당시의 작가들 중 Edgar Allan Poe를 제외한 Nathaniel Hawthorne, Herman Melville 그리고 Henry James 등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작품을 이러한 입장에서 분석한 것을 제시하였다. 그가 보기에 이들의 세계관은 앞서 제시된 Emerson적인 이분법적 구도를 변증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But Emerson subscribed too readily perhaps to a two-party system in intellectual affairs; and he was always puzzled by the attitude of a man like Hawthorne, who seemed skeptically sympathetic toward both parties and managed to be confined by neither.... The human mind seems by nature to be "contrary," as by nurture it becomes dialectical.¹⁾

Lewis에 따르면, 그들은 삶의 총체성이 원죄의식의 교조성이나 미국적 특수상황을 의식한 새로운 윤리 어느 한 쪽 만으로는 조명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순전성의 무력함이 죄의 경험을 통해 성숙한다는 '다행스런 타락'의 관점에서 볼 때 삶의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죄나 죽음이 고통을 가져오지만 그 고통을 통해 각성과 재생을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변증법적 과정이 현실을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Henry James the Elder는 "인생은 비극적 좌초를 통해서만 성숙한다"²⁾고 하였던 것이다.

Lewis는 이러한 변증법적 태도를 비극적 낙관주의라고 요약하면서 그러한 견해를 표방하는 부류의 작가들을 the party of Irony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그들의 세계관이야말로 인생 이해에 있어 포괄적이고 성숙한 견해를 제시한다고 보았다. 순전한 Adam이 죄의 경험을 통해 인간으로 성숙해간 과정을 모형으로 삼아 현실생활의 모순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태도를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더하여 그는 이러한 제 삶의 목소리가 미국문학 속에 존재한 것이 미국이라는 어린 문화가 성숙을 성취한 표징이라고 지적하였다.

1) R.W.B. Lewis, *The American Adam: Innocence, Tragedy, and Tradi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55), pp. 7-8.

2) R.W.B. Lewis, p. 61에서 재인용.

그런데 Lewis는 19세기 동시대를 살았던 Edgar Allan Poe를, 그의 구도로 설명되지 않는 작가로 보았는지 아니면 모순에 찬 삶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한 작가로 보았는지 이유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논의에서 제외할 채, 거의 등한시하고 있다. 그의 논지로 추량해볼 때 그는 Poe가 현실사회의 이러한 갈등을 도외시하고 유희주의적인 취향에만 탐닉한 지극히 개인적인 감성을 가진 작가였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Poe에 대한 여타의 평가를 대략 살펴볼 때도 그는 삶의 복잡성, 모순성보다는 의식 심연의 어두움이라는 면에 경도된 작가로 인식되고 있다. 유희주의적인 미학과 그것에 관련된 죽음에 대한 병적일 정도의 집착, 그리고 공포 탐닉 등에서 알 수 있는 비현실성과 단편을 선호하는 데서 노정될 수 있는 인생이해의 耐忍性 결핍 등이 그를 미성숙한 의식수준 정도에나 적합한 작가로까지 이해되게 하였다. T.S. Eliot은 Poe가 ‘사춘기 전의 재능있는 아이의 지능’³⁾ 정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는데, 그의 이러한 일별성 평가는 Floyd Stovall이 분류한 여섯 가지 Poe 비평경향⁴⁾중 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비평계 대부분의 경향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예가 된다.

그러나 Lewis를 비롯한 일반 평자들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Poe의 창작역정에 나타난 작가정신을 천착해보면 그가 인간과 사회를 그 근원에서부터 얼마나 깊이 통찰하고 있었던가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가 죽음과 공포의 心狀, 유희주의의 극단성, 단편이라는 형태 등에 관심을 가진 것도 그의 이러한 근본적인 인간이해에 근간을 둔 작가정신의 발현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그의 이러한 작가정신에 의거하여 재평가 되어야 한다.

그의 작가정신은 우선 죄의식의 문제를 그가 어떻게 보았는가를 살펴보면 드러난다. 그는 공포와 죽음의 모티프를 통해 이 죄의식을 형상화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죄의식의 문제는 Lewis가 분석 대상으로 한 사람들의 견해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Lewis의 세가지 유형은 결국 죄의식의 문제를 수용하는 태도에 따른 관점의 차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The party of Memory와 the party of Hope가 죄의식의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갈등을 the party of Irony가 발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Poe가 관심을 가졌던 죽음과 공포의 心狀이 이 죄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던 점을 Lewis가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Poe의 죽음과 공포에 대한 태도는 일반의 평가대로 그의 이상심리로만 치부해버릴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물론, Poe 개인의 역사속에서 이러한 腺病質의인 무력감과 자포자기의 한 표현으로서 죽음의 문제를 고찰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⁵⁾ 또한 당시 격변하던 유럽의 정신사에 대한 반향으로 나타난 고딕 소설의 영향을 받아 공포의 소재를 작품속에서 다루었다고 의심받을 만큼 시기적으로 공통성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발생론적인 평가가 유용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또한 Poe의 의도를 축소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는 공포를 서구 문명의 폐해와 연계된 죄의식이 유발하는 인간존재 자체의 위기의식으로 보았고,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인생이해의 변증법적 구도에 의해

3) T.S. Eliot, *From Poe to Valéry*, p.19. Robert Regan, ed., *Po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67), p.172에서 재인용.

4) Floyd Stovall, "The Conscious Art of Edgar Allan Poe," Robert Regan, ed. *Ibid.*, pp.172-74.

5) Harry Levin, *The Power of Blackness*(Chicago: Ohio Univ. Press, 1958), pp.102-103 참고.

설명될 수 있는 작성 혹은 재생의 계기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Poe의 공포는 단순한 피기소설류의 공포와는 의미가 다른,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까지도 포함하는 心狀이며, 죽음의 문제 역시 자신의 가족들의 연속적인 죽음에 연루된 편집증의 한 표현이 아니라 the party of Irony의 견해대로 재생을 경험하게 하는 계기로 인식해야 한다. 그에게 있어 공포와 죽음은 개인적 취향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현상과 그 속에 사는 인간존재에 대한 작가로서의 인식이며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첨예한 예증이었다.

Poe는 단편에 경도되기는 했지만 장편소설과 장시를 쓰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의 단편 선호는 인생이해의 지속성이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기보다 그의 ‘작문의 철학’대로 작품이 의도한 효과의 전달을 극대화하고자 한 방안으로 보아야 한다. 그는 인생의 단편을 간결하고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그 효과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My immediate purpose is to place before the world, plainly, succinctly, and without comment,...⁶⁾) 그의 단편소설론 “The Short Story”에는 이 점이 분명하게 지적되어 있다.

As the novel cannot be read at one sitting, it cannot avail itself of the immense benefit of totality.... In the brief tale, however, the author is enabled to carry out his full design without interruption. During the hour of perusal the soul of the reader is at the writer's control. (p. 566)

그는 삶의 총체적인 모습을 효과의 상실없이 독자들에게 포괄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편의 틀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Lewis의 American Adam 원형이 Poe의 작품들과 어떻게 연계되어 설명될 수 있으며 Lewis가 제시한 인생의 ‘성숙’모형을 Poe가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것을 통해 그의 죽음과 공포의 心狀에 대한 관심이 그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의 결과임을 밝힐 것이다.

II. 죽음과 공포의 心狀

Poe는 그의 죽음과 공포의 心狀을 통해 죄의식에 대한 작가로서의 인식을 표현하였지만 the party of Memory의 견해를 추종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다만 종교적 필요에 의해 죄의식을 강요하였으므로 그들의 주장에는 오히려 비인간적인 강압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한편으로 the party of Hope의 주장에 관해서도 Poe는 죄의식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그것의 허상을 적시하였다. 그들의 주장이 갖는 역사적 무근거성과 그 주장을 현실사회에 잘못 적용한 결과를 드러냄으로써 문명의 폐해까지 지적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죄의식에 대한 태도가 이같이 상반될 때, Poe는 이 양자의 주장을 극복하고 인생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타락 전의 Adam을 원형으로 삼고 그를 창조자의 전형⁷⁾으로 까지 인식하며 만들어낸 문명은 그 장대한 가능성의 이면에 인간과 자연의 착취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다. 즉 순수하고 완전한 Adam이 인디언을 학살하고 노예를 학대하며 기계로 자연을 훼손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므로 the party of Hope는 앞으로 나아가는 Adam만을 본 것이고

6) Philip Van Doren Stern, ed., “The Black Cat,” *The Portable Poe*(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3), p. 296. 이후로 그의 작품을 인용할 때는 본문에 면수만 명기하기로 한다.

7) R.W.B. Lewis, p. 5.

그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포착하지 못한 셈이다. 그 그림자는 결국 the party of Irony들에게 영혼의 어두움으로 인식되었으며⁸⁾ 죄의식까지도 결부되는 복합심상이 되어 그들을 괴롭히게 되었다. 그리하여 Levin은 이들이 ‘암흑의 힘’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⁹⁾ 이들은 해묵은 원죄를 벗어던지려고 했으나 오히려 특수한 그들만의 죄를 새로이 짓게 만든 그들의 국가생활에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원형은 the party of Hope가 주장한 타락 전의 순전한 Adam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 후의 Adam이 되어야 더 현실 설명력을 갖게 된다고 그들은 인식하였다. 즉 이성주의에 기반한 문명의 확대가 평화와 공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인 Adam만을 위한 백인신화 창출을 의도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Lewis도 타락 후의 Adam을 모형으로 삼은 the party of Irony 작가들의 작품이 인생을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나아가 갈등을 발전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성숙한 문화의 대변자가 된다고 지적했던 것이다.

성서 속의 사건을 예로 들더라도 실제적인 인간으로서의 모습은 타락 후의 Adam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Adam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the party of Hope의 견해대로 순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겠지만, 타락한 것이 기성사실이고 현실 생활 자체가 타락 전의 이상적인 모습과는 괴리가 있었으므로 현재 인간모습의 원형은 타락한 후의 Adam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타락 전의 Adam 모형이 단지 현실계를 초월하고자 설정한 이상형이라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삶은 그가 타락한 이후에야 가능했으므로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원형은 타락 후의 Adam이어야 한다. 그의 삶 속에서 죄를 통해 인식의 눈을 뜨게 되는, 모순되지만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생의 원형으로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이다. 자율적인 자아를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은 타락 후의 Adam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모형이다. 죄가 없는 순전한 상태에서는 ‘자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the party of Hope는 엄연히 연속적인 역사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끊고서 역사가 새로 시작된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이해의 전제부터 잘못 설정하고 있다.

Poe에게 있어서도 이 점은 분명하게 지적되고 있다. 그는 공포와 죽음이라는 극한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삶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시하려고 했다. Poe는 인간의 원초감정을 두려움이라고 보았는데 이것은 ‘인간’이 된 직후의 Adam이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벅찬 희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때 설득력이 있다. 타락한 Adam이 느낀 실존적인 두려움은 ‘인간’이 된 존재가 최초로 느낀 강렬한 감정이었던 것이다. 그는 서구 문명이 지닌 이러한 인간이해의 근원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으로써 왜곡된 인생관을 직시할 수가 있었다. Kennedy는 Poe가 공포를 선호한 것에서 인간조건에 대한 Poe의 근본적인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Poe assimilated the conventions of Gothic Horror. His gravitation toward that mode was probably inevitable, for its narrative configuration seems to have embodied his fundamental perception of the human condition. In his preface to *Tales of the Grotesque and Arabesque* (1840), he described the “terror...of the soul” as his essential “thesis.”¹⁰⁾

8) Harry Levin, p. 34.

9) Harry Levin, p. xi.

10) J. Gerald Kennedy, “Phantasms of Death in Poe’s Fiction,” *The Tales of Poe*, Harold Bloom, ed.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p. 112.

그렇다면 Poe의 작품들 속에서 공포의 心狀이 주조를 이루는 것은 서구문명의 인간이해가 물려준 뿌리깊은 원죄의식의 소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Poe도 이것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Poe에게 있어서 인간의 모형은 타락 후의 Adam이었고, 그러한 인식을 문명개발의 와중에서 초래된 어두움에 대한 그의 죄의식과 결부시켜 볼 때, 그의 공포의 심상은 인간의 존립 자체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Poe의 작품속에는 이러한 존재의 위기의식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것 때문에 그가 죽음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Poe에게 나타난 두려움 혹은 공포를 고딕소설의 영향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 역시 Poe가 피기나 공포에 탐닉할 만한 개인적인 사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차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서의 지적대로 Poe에게 있어 공포는 원죄의식이라는 강박관념과 국가창설 초기의 “영혼의 어두움”을 유발한 특수한 비극적 현실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기적으로 공통성이 있다고 해서 전적으로 고딕소설의 영향을 받았다고 치부해 버릴 수만은 없다. Levin은 Poe의 공포가 유럽이라는 외부 현실의 영향이 아니라 암흑의 힘을 느끼고 있던 영혼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¹¹⁾ 고딕소설은 당시 서구사조상 이성주의와 낭만주의의 갈등 와중에 생긴 것으로서 혁명의 혼란 가운데서 기존의 권위가 허물어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귀신이나 피기스런 성채 등으로 그 흔들리는 권위를 상징함으로써 고딕소설은 파멸의 공포를 다루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Poe에게 있어서 고딕소설의 영향을 찾는다면 이성주의의 폐해를 공포로 파악한 정신적 맥락에서 찾을 수 있겠다.¹²⁾ The party of Hope가 이상적 인간상을 제시한 것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한 것이었는데 현실은 오히려 그것에 기반한 문명에 의해 비인간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 공포는 지난 현실인식의 증표이기도 한 것이었다.

Poe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공포라고 보았는데 이는 죽음의 문제와 존재론적인 연관을 갖는다. 성서 속의 Adam이 느낀 공포는 존재 자체에 대한 위기의식이었으며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의 선고로 확인되었는데 그는 순진함을 지키며 영원히 살 수 있을 가능성을 박탈 당하고 존재의 소멸을 선고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에덴에서의 삶의 종말이었을 뿐 ‘인간’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선고를 받은 후, Adam은 그의 아내를 Eve라고 불렀는데 (Genesis 3:20) 그 이름의 뜻은 ‘인간’ 혹은 ‘인생’이었다. 그들은 신의 통제를 받는 피조물임을 의식하며 에덴의 한계 내에서 살아가는 것 대신에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이것이 소위 ‘다행스런 타락’의 구도이며 the party of Irony가 견지하고 있던 인생관이기도 하다. 이들은 성숙을 위해 죄가 필수적이라고 까지 말하며 Adam의 타락을 ‘인간’으로서의 삶의 시작이고 인생이 실수를 통해 자각을 해나가는 과정을 대변하는 사건이라고 보았다. Lewis의 백안시와는 달리 Poe에게도 이러한 인생이해의 구도가 발견된다. 그는 죄와 성숙의 구도를 죽음과 재생의 구도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죽음의 문제를 단순한 물리적 현상으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죽는이 자신이 의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인식하였다. 그의 구도는 살아있는 동안 순간적인 죽음을 겪은 후 다시 깨어나게 되는 과정을 가지고

11) Harry Levin, p. 20.

12) J. Gerald Kennedy, p. 112.

있다.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 삶의 수존재 자체를 경험하는 것으로서 죄를 통한 성숙보다 더 강렬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난 과정이 인간의 자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의 추방에 의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신의 통제를 구속이라고 느끼고 자유를 스스로 창출한 것이 아니라 신의 기준을 어긴 댓가로 질서잡힌 낙원으로부터 추방을 당한 것이다. 이 점에서 인간들이 그들의 前존재에 대해 동경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the party of Hope의 주장의 본령이다. 그들은 절대 신인 이성의 통치 아래 신의 대리자로서의 Adam과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질서 잡힌 낙원의 삶을 동경하여 그것을 신대륙에 재현해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the party of Hope는 그들 부류의 이름에도 맞지 않게 오히려 더 원초적인 Memory에 집착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그것이 Poe에게는 동경으로 비칠 뿐 현실 설명력이 없는 것이었다. 그를 사로잡고 있던 “영혼의 어두움”이 그들이 추창한 이상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오히려 타락 전의 Adam이 죽음을 통해 타락 후의 Adam으로 재생할 것이 더 소망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대로, Poe에게 있어서 죽음과 공포의 심상은 사회현상과도 유리되지 않은 Poe 특유의 인간이해 구도이다. 그는 이 구도를 통해 암흑의 힘에 사로잡힌 현실을 살아갈 새로운 각성의 동기를 제기하고 있다. Feidelson은 이것이 새로운 비전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다(the horror and the extinction are the necessary means to the new vision.¹³⁾) Poe는 이러한 인간이해를 작품 속에 구상화함으로써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비판과 현실긍정을 통한 인간존재 자체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III. 암흑의 힘

Poe에게 있어서 공포와 죽음은 깊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그의 작품 속에는 두 心狀이 연계되어 자주 다루어지고 있다. Poe가 공포의 心狀에 경도되었던 사실은 당시의 정신사에 대한 그의 태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端礎가 되기도 했다. 자주적인 이성을 토대로 세세계 창도를 추창하던 the party of Hope의 신념 이면에 그것이 드리운 그림자와 그것의 폐해에 Poe는 더 비중을 두고¹⁴⁾, 그것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죽음 혹은 파멸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건국초기에 저지른 미국인들의 원주민 학살과 노예 학대 등의 비인간적인 죄악상이 원죄의 유습처럼 미국인의 삶속에 내재해있음을 통찰하고 있었으므로 더욱 죽음의 이미지가 그의 세계관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이다.

괴기소설이나 탐정소설 작가로만 규정되어온 Poe에게도 이러한 사회비판 의식은 그의 작품 곳곳에서 발견된다. Davidson은 “Why the Little Frenchman Wears His Hand in a Sling,” “Never Bet the Devil Your Head,” “Three Sundays in Weeks,” “Diddling”과 “The Balloon Hoax” 등을 사회비판 작품으로 예거하고 있다.¹⁵⁾ 그러나 이 글들은 작품성이 뒤지며 그의 비판적 예각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한 초기작품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보다 “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가 그의 성숙한 작가의식을 더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13) Charles Feidelson, *Symbolism and American Literature*(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53), p. 36.

14) Brian M. Barbour, “Poe and Tradition,” Harold Bloom, ed., p. 76.

15) Edward H. Davidson, *Poe: A Critical Survey*(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57), p. 149.

그의 문명비판 의식을 상징적으로 잘 대변하고 있다.

Usher家の 몰락은 Feidelson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성적 질서의 종말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¹⁶⁾ 그 집이 드러내는 허울만의 총체성(a specious totality)은 곧 the party of Hope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이성주의의 허상을 폭로하는 것이다. Poe는 이성주의에 기반한 문명을 위해 새로운 Adam들이 저지른 잔학상을 목격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주장 자체가 가진 비현실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편에 취해 있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주장은 그들이 몽상 속에서 내뱉은 말이었으므로 현실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 작품의 화자를 통해 그 장면을 목도한 고통스러움을 참혹한 심정으로 토로하게 하였다.

I look upon the scene before me...with an utter depression of soul which I can compare to no earthly sensation more properly than to the afterdream of the reveller upon opium—the bitter lapse into everyday life—the hideous dropping off of the veil.(p. 245)

아무리 상상력을 자극해도 승고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들 주장의 황량함(an unredeemed dreariness of thought which no goading of the imagination could torture into aught of the sublime, p. 245)은 감성을 파괴하고 현실을 지리하게 할 뿐이었던 것이다. 이 점은 그의 시 “Sonnet—To Science”에서 분명히 지적되고 있다.

Why preyest thou thus upon the poet's heart,
Vulture, whose wings are dull realities? (11. 3-4)

그러므로 이성주의의 장대한 가능성은 실상 허울 뿐인 것이고 그 속에서는 Usher 남매의 근친상간¹⁷⁾이 상징하는 자멸이 그 존재 자체의 沒却을 재촉하며 공포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성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은 색채 상징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The Narrative of Arthur Gordon Pym*¹⁸⁾에서 그는 백인 이성주의를 백색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그 백색은 피빛을 동반하는 공포의 색이다. 그는 이 소설에서 시체를 파먹는 흰 갈매기의 피묻은 부리를 부각시킴으로써 당시 백인들의 노예 학대와 원주민 학살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

On his back, from which a portion of the shirt had been torn, leaving it bare, there sat a huge sea-gull, busily gorging itself with the horrible flesh, its bill and talons deep buried, and its white plumage spattered all over with blood. (p. 810)

그러나 그는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성주의의 파멸까지도 상징적으로 제시하였다. Pym은 여행중에 진홍빛 앞밭로 ‘무장한’ 몸집이 큰 ‘하얀’ 괴물의 시체가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을 목격하였던 것이다.

We also picked up a bush, full of red berries, like those of the hawthorn, and the carcass of a singular-looking land-animal. It was three feet in length, and but six inches in height,

16) Charles Feidelson, p. 35.

17) Leslie Fiedler, *Love and Death in the American Novel*(New York: Stein and Day, 1960), p. 415.

18) *The Complete Tales and Poems of Edgar Allan Poe*(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2)에 수록된 작품을 참조함. 이후로 언급할 때에는 *The Narrative*로 약칭하기로 함.

with four very short legs, the feet armed with long claws of a brilliant scarlet, and resembling coral in substance. The body was covered with a straight silky hair, perfectly white. (p. 848).

이것은 the party of Hope가 의도한 백인 신화의 처연한 종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성주의는 Poe에게는 파멸될 수 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주의의 形骸인 Usher家は 결국에 가서 호수 속으로 완전히 허물어져 들어가 버릴수 밖에 없었다.

[A]nd there appeared to be a wild inconsistency between its still perfect adaptation of parts, and the crumbling condition of the individual stones. In this there was much that reminded me of the specious totality of old wood-work which has rotted for long years in some neglected vault,.... Perhaps the eye of a scrutinising observer might have discovered a barely perceptible fissure, which, extending from the roof of the building in front, made its way down the wall in a zigzag direction, until it became lost in the sullen waters of the tarn. (p. 248)

그리고 이성주의의 성곽 옆에서 그 모습을 비추고 있던 호수는 작가의 의식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호수에 비친 이성주의의 모습이 변형되고 뒤집어진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은 이런 이성주의에 대한 Poe의 의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리고 허물어지는 이성주의의 온갖 파편까지도 모두 포용할 호수가 검은 빛을 띠고 있었다는 사실은 Poe의 인간이해가 원죄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작가의 의식내면에 존재의 어두움에 대한 인식이 명각되어 있다는 표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Poe에게 있어서 이러한 죄의식이 종교적인 소재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개진한 인간의 원초감정이 존재론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Poe에게 있어서도 죄의식의 문제가, 검은 호수 처럼 뒤틀린 일상을 반영해 내고 있는 중요한 모티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죄의식은 서구문명이 지속되어 오는 동안 끈질기게 유전되어 왔고 특히 19세기 신대륙의 자의식과 정체감 확립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당시 작가들의 의식 속에 투영되어 있을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Adam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신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식에 의한 존재의 위기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Poe에게 있어서 이러한 존재의 위기의식은 죽음 혹은 파멸이라는 모티프로 작품속에 구현되어 있다. 예컨대 “The Black Cat”에는 인간의 죄의식 문제가 가장 적절한 구도로 안배되어 묘사되고 있다. 검은 고양이는 화자를 늘 따라다녔는데 그것은 화자가 그 동물을 애호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만취라는 정상이탈의 상태에 있을 때 그에게 그 고양이는, 늘 따라다니므로 귀찮고 피로와서 죽여 물어 버리고 싶은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몇번의 시도 끝에 이 뿔마의 화신을 죽였지만 그 고양이는 또 다시 나타나 결국에 그를 파멸로 몰아 넣고야 말았다.

이 이야기에서 보면 인간에게 끈질기게 따라다녀서 피로운 죄의식의 문제가 Pluto라는 고양이의 이름과 그 고양이의 색깔에서 벌써 암시되고 있다. 그러나 화자가 술이 취하기 전에는 그것을 모르고 서로 잘 지내고 있었다. ‘악마의 간계에 의해’ 술이 취하게 되자 화자는 급격하게 성질이 변하게 되고 급기야는 인간이 타락한 후 겪게 된 감정의 동요까지도 보인다. 화자의 고백 속에는 원초의 인간 Adam이 타락하게 된 경위와 그 결과가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Our friendship lasted, in this manner, for several years, during which my general temperament

and character—through the instrumentality of the Fiend Intemperance—had (I blush to confess it) experienced a radical alteration for the worse. I grew, day by day, more moody, more irritable, more regardless of the feelings of others. I suffered myself to use intemperate language to my wife. At length, I even offered her personal violence. My pets, of course, were made to feel the change in my disposition. (p. 298).

화자는 ‘타락’ 후에 끈질기게 자신의 주위를 맴도는 죄의식때문에 가위놀리는 듯한 고통을 겪는다.

Alas! neither by day nor by night knew I the blessing of Rest any more! During the former the creature left me no moment alone; and, in the latter, I started, hourly, from dreams of unutterable fear to find the hot breath of the thing upon my face, and its vast weight—an incarnate Night-Mare that I had no power to shake off—incumbent eternally upon my heart! (p. 304)

화자는 지고한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fashioned in the image of the High God)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고통(so much of insufferable woe)에 시달리는 모습에 연민을 느끼면서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의도는 ‘인간’이 된 이후의 인간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영혼의 욕구(It was this unfathomable longing of the soul to vex itself—to offer violence to its own nature—to do wrong for the wrong’s sake only—), 곧 인간 본연의 죄악성(Innate Depravity)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더 큰 파멸을 불러 올 수 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막대기를 들고 자신의 아내를 물어버린 벽을 치게 된 것이고 결국 자신도 파멸로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가 가위 놀린 상태에서 보았던 형상은 바로 파멸 곧 죽음의 형상이었다.

It was now the representation of an object that I shudder to name—and for this, above all, I loathed, and dreaded, and would have rid myself of the monster had I dared—it was now, I say, the image of a hideous—of a ghastly thing—of the GALLOWS!—oh, mournful and terrible engine of Horror and of Crime—of Agony and of Death! (p. 304)

“The Cask of Amontillado”에서 Montresor는 ‘검은 고양이’처럼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Fortunato를 지하로 유인하여 매장해버린다. “The Black Cat”에서 술취한 것이 타락이었던 것처럼 술취한 Fortunato는 타락과 죄의식을 동시에 상징하는 인물로서 Montresor에게는 몽마와 같은 존재였다. 그는 감히 버린 죄의식이 새어나올 틈이 없도록 벽을 쌓은 후 남은 뼈다귀들로 감쪽같이 위장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로잡히게 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는 그 죄의식을 자신의 가문의 묘에다 묻었던 것이다. 자신의 가문이 죄의식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 놓은 셈이 된 것이다. 자신의 집 지하실에 그 죄의식을 묻었으므로 자신의 집이나 자신의 존재가 그 토대 위에서 있다는 암시도 찾을 수 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내던진 기원의 말은 죄의식이 영구히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지만 결국 이같은 모순을 저지름으로써 결코 그러한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나를 해친 자에게 보복이 있으리라’는 紋章을 가진 가문으로서 그 전통을 통해 이 죄의식은 유전될 것이며, 보복행위를 한 자에게는 해가 없을 것이라 믿는 그 문장이 가진 맹

점이 그를 결국 파멸시키고야말 요소를 갖는 것이다. 그는 복수를 위해 술이 있는 곳으로 Fortunato를 유인하였으며 그의 심리를 이용하여 그의 판단력을 미혹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Montresor는 타락으로 유인하는 사탄과 다름없는 존재이며 따라서 그도 결국 자신을 괴롭히던 Fortunato와 다를 바 없는 인물이 된다. Walters Stepp은 Montresor가 자신의 분신인 Fortunato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죽였다¹⁹⁾고 까지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William Wilson처럼 자신이 도덕적으로 자살을 한 것²⁰⁾이며 이는 곧 자신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그가 Fortunato를 매장한 사실은 50년이 지난 후 드러나게 되었고(For the half of a century no mortal has disturbed them)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독자들에게 50년이 지난 지금 고백함으로써 그 사실은 밝혀지게 된 것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내뱉진 기원 —In pace requiescat!—에는 죄의식이 더 이상 출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는 점과, 이 이야기가 자신의 성질을 잘 알고 있는 독자(You, who so well know the nature of my soul)에게 고백한 것임을 감안할 때 그가 지난 50년간 Fortunato를 죽였다는 죄의식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도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러한 죄의식은 Adam이 느꼈던 존재의 위기의식 곧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간이해를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Poe의 작품속에 이렇듯 파멸과 죽음의 어두운 힘이 편재하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당시를 살았던 작가로서 Poe도 당시의 여타 작가와 같이 이러한 이성주의의 그림자와 죄의식의 고민이 얽혀있는 '암흑'의 힘에 삼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죽음과 재생

Poe에게 있어 죽음은 이같은 어두움의 힘에 의한 파멸의 암시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 삶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게 하는 모티프가 되기도 한다. 그에게 있어서 물리적인 죽음은 살해당하는 것이거나 혹은 假死상태에서 매장당하는 등 왜곡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죽음이 이 작품의 소재로 자주 사용되는 것을 Poe 자신의 이상심리나 혹은 그의 유태주의적 발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그러나 이 부자연스런 죽음의 양태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또한 그것때문에 이성의 전횡에 대한 은유가 될 수도 있다. Montresor가 집요하게 회유하여 Fortunato를 살해한 것과 오랑우탄이 자연에서 문명사회 속으로 포획되어 체적으로 길 들여지다가 문명사회를 흉내내면서 저지른 살해사건("The Murders in the Rue Morgue"), 그리고 의학적인 판단의 결과로 일어난 생매장("The Premature Burial") 등은 모두 이성주의의 파괴적 속성을 지적해 주는 예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생매장의 경우는 죽음에 탐닉한 유태주의자의 도착심리로 보거나 이성주의의 폐해로 보기보다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체험함으로써 삶 전체의 구도를 설명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접예한 예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The Narrative*에서는 Pym의 '생매장' 경험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19) Walter Stepp, "The Ironic Double in Poe's 'The Cask of Amontillado'," Harold Bloom, ed., p. 61.

20) Harry Levin, p. 143.

I firmly believed that no incident ever occurring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 is more adapted to inspire the supremeness of mental and bodily distress which envelops the victim, the terrific oppression of lungs, the stifling fumes from the damp earth, unite with the ghastly condenserations that we are beyond the remotest confines of hope, and that such is the allotted portion of *the dead*, to carry into the human heart a degree of appalling awe and horror not to be tolerated—never to be conceived. (pp. 861-62)

Pym은 이러한 생매장 경험을 한 후에 스스로 새로이 태어난 것을 느낀다.

On recovery, my trepidation had entirely vanished; I felt a new being, and, with some little further aid from my companion, reached the bottom also in safety. (pp. 875-76)

“The Premature Burial”이라는 同名의 작품에는 질병이나 사고로 가사상태에 빠진 사람이 매장을 당한 후 깨어나서는 다시 죽거나 정상회복을 못하게 되는 것을 그것의 일반적인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모형은 삶의 끝에 서서 삶의 고뇌의 최고치가 공포(the supremeness of bodily and of mental distress...a degree of appalling and intolerable horror. p. 181)인 것을 느낀 사람에게는 생매장당하기 전의 자신의 존재가 죽어버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가사상태에서 생매장을 당하였던 네명이 다시 깨어난 후 얼마간 시간이 경과한 이후 다시 죽거나 또한 죽기전의 상태로 원상회복되지 못하는데 반하여 화자가 몽환 상태에서나마 직접 경험한 생매장은 화자를 새로 태어나게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화자의 경험은 이전의 네명의 경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화자는 네명의 경험을 모두 알고 있었고 자신도 그것의 경험자인데다가 과거의 자신의 존재가 죽었음을 상징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In short, I became a new man, and lived a man's life. From that memorable night, I dismissed forever my charnel apprehensions, and with them vanished the cataleptic disorder, of which, perhaps, they had been less the consequence than the cause. (p. 190)

그러나 4명의 생매장 경험자들이 깨어난 후, 다시 죽게 되거나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죽음이 강제된 것이라는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학적 이성의 판단착오로 생명의 연속을 차단당했었다. “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에서도 the lady Madeline이 생매장을 당한 것은 그녀의 오빠 Roderic Usher의 판단착오 혹은 의도에 의해 강제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피기스런 환생은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 집안 전체의 몰락과 파멸을 초래하고야만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죽음이 존재의 몰락만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Poe는 이러한 강제된 죽음의 예들을 통해 前존재에 대한 죽음을 강요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비전에 이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The Premature Burial”의 화자는 상징적으로 볼 때, 그의 죽음을 자발적으로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When Nature could endure wakefulness no longer, it was with a struggle that I consented to sleep—for I shuddered to reflect that, upon waking, I might find myself the tenant of a grave. And when, finally, I sank into slumber, it was only to rush at once into a world of phantasms, above which, with vast, sable, overshadowing wings, hovered, predominant, the one sepulchral

Idea. (pp. 183-84)

생애장 당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존재의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말인데, 이 의식이 여기서서는 잠, 곧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동인이 되었다. 힘들긴 하지만 이 존재의 위기의식이, 前존재의 죽음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게 한 것이다. 그는 이 자발적 수용을 통해 파멸에 이르지 않고 삶의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된 것이다(I became a new man). 이 점에서 Poe는 새로운 각성을 위한 의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듯하다.

*The Narrative*의 Pym도 극한상황을 겪으며 죽고자한 절박한 심정이었을 때 새로운 존재로의 탄생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

For one moment my fingers clutched convulsively upon their hold, while, with the movement, the faintest possible idea of ultimate escape wandered, like a shadow, through my mind—in the next my whole soul was pervaded with a *longing to fall*; a desire, a yearning, a passion utterly uncontrollable. (p. 875)

‘잡드는 것에 스스로 동의한 것’이거나 ‘죽고 싶어’했다는 것은 그들의 현실태가 극한상황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삶의 끝에 서서 삶의 고뇌의 최고치’를 겪었을 때가 새로운 삶으로의 탄생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옴으로써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구도에서는 Poe가 현실을 긍정하는 태도를 지녔다는 사실을 파악해 낼 수 있게 한다. 흔히, Poe가 현실을 지옥같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초월하여 초월세계의 美를 추구하였다고 그의 세계관을 오해하지만 그는 그 지옥같은 현실을 영구히 벗어나려는 의도로 죽음의 모티프를 즐겨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죽음을 통하여 현실을 긍정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실이었으며(it is the fact—it is the reality—it is the history which excites. p.173) 죽음의 문제도 개별적인 인간(man the unit)이 느낀 구체적인 체험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현실세계에서도 생과 사의 구분은 불명확하며(The boundaries which divide Life from Death, are at best shadowy and vague. p.174), 살아가고는 있지만 죄의식이나 이성주의의 폐해에 젖어 정신적으로 죽은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이 곧 지옥 같았고 공포로 젖어있는 서글픈 인생(the world of our sad Humanity may assume the semblance of a Hell. p.190)인 것이며 그것이 바로 초월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영혼의 어두움”을 느낄 따름인 당시 문명사회의 모습을 지옥같은 존재로 파악했을 뿐, 결코 그는 현실계 전체를 초월하여 플라톤적인 이상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Poe는 Dostoevsky의 지적대로 ‘리얼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¹⁾ 타락 전의 Adam을 인간의 원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의도는 현실을 초월하고자하는 욕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Poe에게 있어서 인간의 모형은 더이상 타락전의 Adam일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그가 미학상으로 초월적인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기는 했어도 그 의도가 인생 자체를 초월하고자 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그의 인생관을 곡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선호했던 ‘미녀의 죽음’이라는 소재도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시적인 주제(the most poetical topic in the world)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의 단편 소설론에도 바로 그 점이 지적되어 있다.

21) Harry Levin, p. 104.

It may be added here, *par parenthèse*, that the author who aims at the purely beautiful in a prose tale is laboring at great disadvantage. For Beauty can be better treated in the poem. Not so with terror, or passion, or a multitude of such other points. (p. 567)

아름다움 자체가 시에 적합한 소재인데다, 미녀의 죽음을 다룬 작품은 36편의 *The Arabesques* 계열 작품중 “Berenice,” “Morella,” “Ligeia,” “Eleonora,” “The Oval Portrait” 등 5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가 초월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는 말도 성립이 안된다. 현실세계에서는 간혹 진실이 허구보다 더 이상하며(truth is, indeed, stranger than fiction. p. 176) 진리라는 것도 그것에 대한 우리의 신념에 달린 상대적인 개념(an interest...depends upon our conviction of the truth of the matter narrated. p. 181)에 불과한 것으로서 초월적인 절대진리란 현실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마지막 산문 장서 *Eureka*²²⁾를 보면 그가 삶의 이원적 존재를 인정하는 듯하지만 이것이 곧 그가 초월을 의도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그의 진정한 의도는 그렇게 보이는 구도 자체도 삶이라는 범주 속에 통합되는, 이분되지 않은 현실 삶의 요소임을 보여주는 데 있었다. 그가 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존재의 확장과 삶의 가치 고양이었다.

Think that the sense of individual identity will be gradually merged in the general consciousness—that Man, for example, ceasing imperceptibly to feel himself Man, will at length attain that awfully triumphant epoch when he shall recognise his existence as that of Jehovah. In the meantime bear in mind that all is Life—Life—Life within Life—the less within the greater, and all within the *Spirit Divine*. (p. 559)

그랬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그것을 초월의 통로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삶과 구분되지 않는 현실 세계 안의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현실세계의 존재를 긍정한 것이었다. 삶과 죽음의 공존상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인생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확보하게 된 그는 죽음의 경험 후 현실계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삶의 모형을 통해 삶의 새로운 비전을 갖는 희망을 또한 제시해 주고 있다.

V. 삶에 대한 포괄적 이해

이러한 삶의 복합성 내지는 모순성을 인식하고 있던 Poe는 작품을 통해 독자와 교류하면서 독자들에게 이러한 현실인식에 대한 가르침을 꾸준히 행하고 있다. “The Purloined Letter”에서 Dupin이 편지도난사건 배후의 숨겨진 모순을 이해했을 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Poe가 제시한 것은 그가 독자들에게 그러한 삶의 비전을 촉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게 있어 탐정소설이라는 ‘작문의 철학’은 숨겨진 모순을 포착하는 것이 인생이해의 방안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의 삶의 모순성 인식은 색채 상징에도 나타난다. 앞에서 그가 백색을 경원시한다고 하였지만, 그렇다고 그가 흑색에 대해서 일방적인 동정을 한 것은 아니었다. *The Narrative*에서 샬랄(Tsalal) 섬의 원주민은 치아까지도 검은, 흑색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치밀한 음모를 꾸며 문명세계로부터 온 백인들을 배신함으로써 그들을 몰살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건을 기술함으로 Poe는 자신이 흑 혹은 백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 모순을 인

22) Joe Lee Davis, et al. ed., *A Treasury of American Literature*(New York: Grolier, 1973)에 수록된 작품 참고함.

식하며 양자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영혼의 어두움”을 깨우치고자 한 것이었다. 그래서 혼혈인인 Dirk Peters로 하여금 가장 끝까지 살아남아서 자신과 주위의 삶의 전모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에서 화자 혼자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Usher家の 삶의 전체 모습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으며 그가 살아남음으로써 Usher家가 상징하는 이성주의의 形骸를 독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이같이 삶의 모순성을 이해하고 삶을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인생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다. Lewis가 비극적 낙관주의라고 요약한 the party of Irony의 세계관도 결국은 인생을 보는 시각이 포괄적인 것임을 표방하는 것이므로 그들의 부류속에 Poe도 한 위치를 차지하고 성숙한 문화의 대변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Lewis는 Poe가 당시 세계를 떠나 반사회화의 과정²³⁾을 추구하는 인물이라고 보았을 뿐, 삶의 전체 모습을 파악한 작가로 보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Poe는 19세기 미국의 현실을 그들 문명의 근원으로부터 적시할 것을 독자들에게 간명하게 제시하였으며 삶을 포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삶의 모순을 포용하는 성숙한 인간이해의 비전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참 고 문 헌

PRIMARY SOURCES

- The Portable Poe*. Philip Van Doren Stern, ed.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3.
A Treasury of American Literature. Joe Lee Davis, et al. ed. New York: Grolier, 1973.
The Complete Tales and Poems of Edgar Allan Po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2.

SECONDARY SOURCES

- Bloom, Harold, ed. *The Tales of Poe*.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 1987.
 Davidson, Edward H. *Poe: A Critical Survey*.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57.
 Feidelson, Charles. *Symbolism and American Literature*.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53.
 Fiedler, Leslie. *Love and Death in the American Novel*. New York: Stein and Day, 1960.
 Levin, Harry. *The Power of Blackness*. Chicago: Ohio Univ. Press, 1958.
 Lewis, R.W.B. *The American Adam: Innocence, Tragedy, and Tradi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55.
 Regan, Robert, ed. *Po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67.

23) Harry Levin, p. 115.